



김복희 이사장은 ... 1948년생으로 대구여고 졸업, 이화여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원광대 대학원 철학 석사와 경기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와 동대학원 예술학부 학부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불교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무용 70여 편을 창작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만들었고 이듬해 '춤작가 12인전'을 창설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무용인 최초로 체육대학장을 지낸 그는 현대무용 활성화를 위해 남성 무용수도 발굴해냈다. 제자 손관중 한양대 교수(55)가 대표적이다. 또한 2010년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를 만들고 대한민국 무용대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콘텐츠 대중화... 재능기부 발원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적 요소가 풍부하면서도 수준 높은 안무를 보여주는 현대 무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90년대에는 이광수의 소설 <꿈>을 원전으로 삼은 허무와 불교적 윤회를 춤으로 이미지화한 작품인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1995)', 스페인의 저항시인 페데리코 카르시아 로르카가 지은 동명의 비극에 한국적 전통 혼례와 장례를 결합한 '피의 결혼(1997)'을 무대에 올렸다. 또 2000년대에는 화가 이중섭의 삶과 철학을 녹여낸 '달과 까마귀(2002)', 인간의 역사는 흙 위에서 반복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흙의 울음(2009)'으로 대중들을 만나왔다. 이렇게 40여년 넘게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다지며 70여 작품을 만들어온 김복희 이사장이 끊임없이 무대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수행과도 같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다져요. 그리고 일 주일에 세 번은 꼭 무용 연습을 하죠. 공연이 있을 때는 주말까지 연습을 하니 주 3회에서 5회는 연습을 한다고 봐야죠.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무대에 오래 설 수 있어요. 어찌보면 어려운 길이지요. 그래서 이 길을 왔다가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여럿 봤어요. 결국 수행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기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게 무용의 길이기도 해요. 항상 무대에 오르는 것이 떨리는 일이지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면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래서 늘 철저한 연습만이 답입니다."

독서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 상당수가 문학이나 불경을 모티브로 하는 것만 봐도 그가 독서



김복희 이사장이 기획한 '천형, 그 생명의 수레' 공연 장면.

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다.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어요. 제자들과 얘기하다보면 신간을 제가 더 많이 읽은 경우도 있죠. 이번에 제가 새롭게 선보인 '눈길' 역시 이창준의 소설을 읽고 받은 감동을 작품으로 만들어 냈죠."

또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무술과 태권도의 동작을 배워 현대무용에 접목하기도 했다. "서양의 동작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현대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술, 태권도를 따로 배우면서 다른 느낌을 만들어 냈죠. 결국 한국 무용이나 현대 무용이나 몸의 원리는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통 무술이 단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현대무용도 아랫배의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둘 모두 움직임의 기본 공통점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김 이사장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항상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 "결국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생기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자신을 훈련하라고 조언해줘요. 자신이 바로 서서 최선을 다하면 나도 이롭고 세상이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5월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그가 창작한 '살꽃 바람꽃 V, 눈길'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려는가 하면, 6월 남원 공연에 이어, 8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정년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10년 후에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수줍은 웃음을 보인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선은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불교 콘텐츠를 대중화한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술가에게는 정년이 따로 없으니까요. 또 재능기부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고 싶구요. 자신할 수 없지만 10년 후에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공연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전법일기

믿어라. 시주해라.

간부를 양성하는 부대(학교기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부대에 처음 온 후보생들에게 종교 소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의 군종장교들이 각자의 종교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독교를 소개하고 신부님이 천주교를 소개했는데 서로 자기 종교의 특징과 믿을 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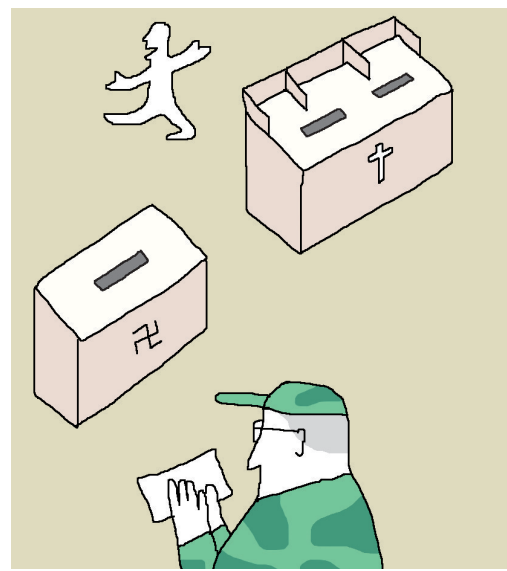
이어 입대하기 전에 교회나 성당을 다녀본 이들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든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은 군대에서도 바깥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를 소개하는 차례가 오자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입대 전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해 온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하면 있는 불자들도 무언가 자기들은 응징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 온 종교에서 듣고 배운 가르침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소개 시간에 뜬금없는 질문을 받은 후보생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자신이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믿어라, 돈내라' 아니던가요?"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강당을 꽉 채운 400여 명은 숨소리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조용해졌지요. 저는 후보생들이 스스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인의 권유가 아닌 자신의 원력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소개 시간 이후 몇 일 후 법회 시간에 몇 명



그림·박구원

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후보생은 자신은 10년 넘게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한 번도 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을 듣고 의심이 들고 머리가 아팠답니다.

"믿어라, 돈내라' 가 아니라고 수없이 되뇌여 보아도,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었는데도 달리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나와 부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면서도 부담이 됐습니다. 과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과 돈을 내라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여 주가 지났을까. 그 후보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용케도 그 친구는 10주 넘게 매주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청년이 제가 던진 한마디에 10주 연속 법회에 참석이라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사님, 법사님 법문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간 뒷머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두 단어가...'

"법사님 말씀은 결국 두 단어입니다. '믿어라, 시주해라' 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의 이야기와 기존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구요. 그러자 그 친구는 "법사님께서는 '굳이 절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든 도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 항상 베풀고 살라'고 하더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위는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에 다닐 예정입니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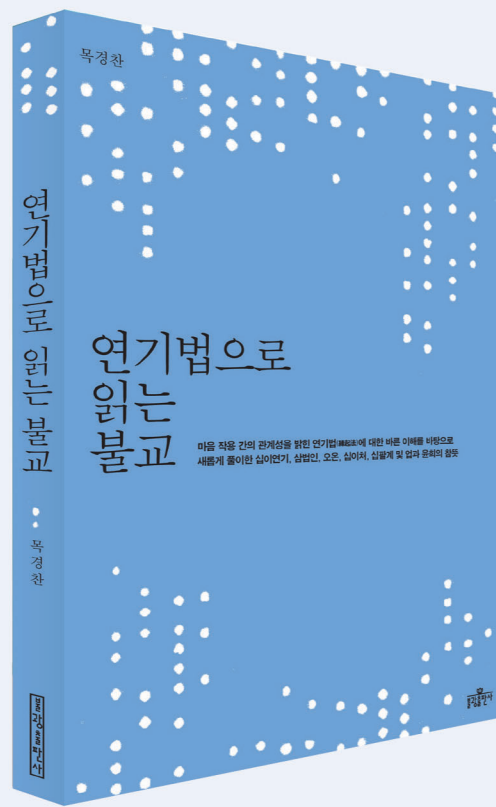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던 말 한마디에 새 불자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후 그 청년은 학교 과정을 거쳐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그 청년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어디선가 아름답게 청년불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성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緣起法,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미혹과 업으로 인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목경찬 지음 216쪽 13,000원

- 통찰력 넘치는 새로운 시각과 평이한 언어로 풀어낸 연기법의 참뜻
- 마음 작용 간의 관계성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의 기본 교리체계
- 연기법에 의거한 심이연기, 삼법인,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바른 이해

스무살 심리학과 학생들이 평상에 빠진다

8주 동안 먹고, 공부하고, 명상하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확 뒤바뀔 심리학과 학생들의 리얼 명상 체험기

명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음행진 명상 사용설명서

김정호 지음 352쪽 15,000원

